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음 9월 27일) 제24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위기를 기회로... 군산, 전기차로 새롭게 비상

전북도, 명신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관련기사 6편

문 정부 들어 6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
2022년까지 4122억 투자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일자리 1900여명 창출
중소·중견기업이 중심

24일 오후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양태 노총 군산시지부와 5개 전기차 완성차기업 및 부품기업의 노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군산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은 GM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하에, 식전공연, 군산형 일자리 소개영상 상영, 소감발표, 협약체결, 상생형 일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 밀양, 구미, 황성, 대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6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군산·새만금 산단에 2022년까지 총 4122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직접 일자리 약 1900여명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명신 군산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협약 서명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등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에 참여한다. 기존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완성차-부품업체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협약식이 열린 명신 군산공장은 지난 3월 폐쇄된 한국GM 공장을 인수한 곳이다. GM 철수로 군산 지역에서는 약 28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상생형 일자리 중 가장

많은 19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고용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에에는 민주노총이 논의의 초기부터 기업 유치, 완성도 높은 상생협약 마련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다. 기존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역 공동교섭'이 전국 최초로 시작됐고, 사업장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정임금 체계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축하

를 통해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에서는 전기차 전문 인력이 자라고 있다. 전기차 개발 시 협과 양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다.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는 전기 승용차, 버스, 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

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닫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냈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전북 군산은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가

야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GM사태를 통해 군산시민이 더욱 더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늘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각 주체의 양보와 헌신은 지역의 도약과 공정경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축을 대표하여 발표한 (주)명신 이태규 사장은 "당장 내년부터 바이톤 생산을 준비하고, 자체모델 개발도 병행하여 '22년까지 최소 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전북 군산이 전기차 산업의 1번지로 성장할 것이며, 명신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최재훈 군산시지부장은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역은 또 절실한 지역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국노총 고진곤 군산지부 의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속에서 노사 또한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으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약 9개월 만에 밀양(6월), 대구(7월), 구미(7월), 황성(8월), 군산(10월) 등으로 확산됐다.

청와대는 6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2조1300억원의 투자와 5200명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어울림 축제 '광파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사람과 자연,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가을축제가 열린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첫마중길 850m 전 구간에서 기업·주민·청년·예술인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어울림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와 첫마중길 페스티벌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우이1동 상생위원회, 상가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전주역세권 주민협의체 등이 힘과 지혜를 모아 마련했다.

이날 첫마중길에서는 (사)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전

주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및 노사 화합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바이전주 우수기업을 비롯한 연합회 80여개 회사와 10여 개 전주시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해 제품 홍보 및 현장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첫마중길페스티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회 첫마중길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첫마중길 특별무대에서는 우이1동 문화의집에서 국악가요, 우리춤 공연 등 생활문화공연, 어울림 예술원 등 전문공연단체에서 준비한

내일 첫마중길 850m 전 구간서
중기 제품박람회·한복공연
프리마켓·먹거리 장터 등 다채

축하공연, 기념식, 초대가수들의 축하공연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버룩시장 △농산물·공산품 직거래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왜 첫마중길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첫마중길 인근 복합문화공간인 '리틀디자인랩'에서는 '전주에서는 할로윈에 한복입고 논다,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한복을 꺼내 입자'를 주제로 한 '한복복합 in 할로윈' 행사도 펼쳐진다.

이 행사에서는 저승사자와 열라대왕, 서양 귀신 등 할로윈 분장에 한복을 차려입은 시민과 여행객이 모

여 함께 즐기고, △할로윈 한복 콘테스트 △한복 디스코 파티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어울림 축제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전곡을 대표하는 거리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뉴딜사업 정책 목표인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전주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재생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마중길 일대는 정부핵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300여억원을 투입해 △전주역 혁신거점 조성 △청년활력증진산업 △도심공간의 질 향상 △주민역량강화 및 상생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부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VR·AR(가상·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Laks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